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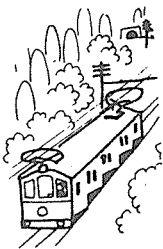
특집

□ 低油價時代 □

原油價 폭락

- 어디서

멈출 것인가



北海원유 대 아랍원유

이번 原油가격의 급락과 관련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 OECD가맹국의 85년도 에너지 수요는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지만, 제 1차 에너지에서 石油 점유율은 3.8% 감소하였다(83년도 1.6% 감소, 84년도 1% 증가).

- OECD제국이 재고감축을 추진하여 85년 7월에는 국가비축분을 포함하여 100일분의 재고가 86.1월에는 94일분으로 감소했다. 특히 민간재고는 80년 10월의 피크에 비해 1/3이 줄었다.

- 작년 가을에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유럽의 겨울이 따뜻했던 관계로 소비자의 사전비축, 판매업자의 매출공세로 제품가격이 급락하여 原油價 하락에 박차를 가했다.

- 英國에서는 탄광파업이 수습되어 하루 40만배럴 상당의 석유수요가 석탄으로 대체되었다.

- 北海원유의 85년도 4/4분기의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만배럴이 늘어 하루에 390만배럴이 되었다.

- 85. 10월부터 시작된 사우디 아라비아의 네트백 방식에 의해 85. 8월에 하루 200만배럴로부터 12월에는 450만배럴, 86. 1월 첫째주에는 530만배럴까지 증산되었다.

- 세계의 수급상황은 85년 4/4분기에 수요 하루 4,650만배럴에 대해 공급이 4,760만배럴로 하루에 110만배럴의 공급과잉이 나타났다(공급량중 OPEC분은 1,850만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

수요의 감소, 代替에너지의 증가, 재고방출이 原油가격의 급락을 초래한 점은 3년전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北海원유의 스파트 시장가격 하락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공통이다. 크게 다른점은 지난번에는 OPEC가 감산에 의해 가격하락을 막았으나, 이번은 시장점유율의 확보 내지 확대를 추구하고 가격경쟁에 나섰다라는 점이다. 특히, 지난번은 생산조정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시황의 냉각화에 노력했던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번은 네트백 방식을 무기로 하여 가격하락을 촉진하고 있는 점이 커다란 차이이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北海産 원유와 경쟁하는 歐美시장에 한하여 네트백 판매를 개시하고 비밀리에 英國과 협조 감산 논의를 추진해 왔으나, 그 협의가 결렬되자 네트백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앞으

로의 원유가격의 추이를 전망하는데 주목할만한 점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네트백 방식은 작년 11월은 예외이지만, 스파트 가격을 밀고 있다. 또한 사우디는 정제비로써 배럴당 30센트를 공제해 주고 있으나, 美國의 경우를 보면, 정제마진은 10~15센트에 불과하다. 사우디가 이 마진에 2-3배의 이익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스파트 거래보다 유리하다. 사우디의 유력지인 알 샤크 알 아우사드는 2월 1일자 사설에서 『원유가격을 낮추기 위하여는 생산의 증가, 판매의 증가가 필요하다. 英國 등 非OPEC제국을 포함한 전 산유국을 생산할당제의 기치 아래 결집시키기 위하여는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네트백을 무기로 하여 非OPEC제국 특히 北海 원유에 대한 선전포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란, 이집트등 일부 산유국은 감산정책을 발표했으나, 사우디의 선전포고에 의해 국제원유 시장은 또 한차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배럴=15달러가 危機라인인가

原油가격의 하락은 다음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좀체로 하강을 멈추기 어려울 것이다.

- ① 주요 원유의 생산 코스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 ② 代替에너지에 파멸적 타격을 가하는 수준이 되는 경우
- ③ 1차 상품가격을 둘러싸고 국제금융 불안이 재현되는 경우

原油코스트는 하루 100배럴이나, 1,000 배럴의 소규모 유전이 아니고, 100만배럴 이상의 대규모 유전의 코스트가 대상이 된다. 제 1의 후보는 알래스카, 노드슬로프 원유의 코스트이다. 北極海에 면한 노드 슬로프 유전은 가혹한 자연환경과 출하항까지의 원거리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스트의 유전이다. 하루 130만배럴의 생산량중 알래스카 주정부의 취득분은 20만배럴이다. 주정부에 판매기능이 없기 때문에 생산회사에 위탁거래를 하나, 이 거래가격은 파이프라인 사용료 5.79달러를 포함하여 배럴당 16.7달러이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그 이하가 되면 생산회사가 적자판매를 하던가 주정부의 수입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또 하나의 지표원유는 北海원유이다. 노드슬로프 정도는 아니지만, 초기개발분은 6달러, 신규 개발분은 18달러이다. 여기에 5달러의 세금이 더해져 판매원가는 배럴당 11~23달러가 된다. 만약 北海 원유의 스파트 가격이 20달러를 벗어나면 신규개발은 출혈서비스가 된다.

代替에너지 코스트는 어떠한가?

지난번에 역오일쇼크에 의해 日本, 西獨, 美國의 3국합작 사업인 144억달러의 석탄 액화 프로젝트와 120억달러의 캐나다 오일샌드개발, 엑슨이 추진하는 60억달러의 오일셀 개발 등은 각각 좌절되었으나, LNG, 원자력, 石炭은 석유시장을 빼앗고 수요를 늘리고 있다. 原油가격이 배럴당 28달러선이었기 때문이다.

원유가격이 만약 배럴당 15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發電코스트에서 차지하는 연료비는 石炭, LNG 쪽이 높게 되어 石油 火力이 부활한다. 石炭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LNG, 원자력은 위협하게 된다. 소비국에게는 큰일이다. 조만간에 산유국과 소비국의 대화에 의해 위기회피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국제금융 불안은 앞의 두가지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번 멕시코가 재정파탄에 빠져 中南美로 파급되려고 했을때 美國 정부는 10억달러를 긴급융자하고 그 상황은 전략비축용 원유로 대체하도록 하여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 이번의 유가 급락으로는 멕시코, 페루, 탄자니아가 채무상환 불능 또는 그 가능성을 표명했으며, 그외에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를 위시한 中南美 및 共產圈으로 부터도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난번에는 美國이 멕시코를 구했으나, 재정 및 무역적자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레이건 정부로서는 다시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금융사이드로부터 원유가격 하락을 멈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유국들간의 石油戰爭

여기에서 또 하나의 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네트백 方式의 사우디 原油와 스파트 가격의 北海産 원유의 가격경쟁으로 대표되는 이번의 대결은 역사적으로는 제 3차 석유전쟁에 상당한다.

- 제 1차 석유전쟁(1970-1973)

• 산유국 對 메이저

▲ 리비아의 공식가격 및 이권료 인상에서 비롯하여 油田의 국유화, 생산회사에 대한 사업참가의 싸움

- 제 2차 석유전쟁(1973-1982)

• OPEC 對 소비국

▲ 두번에 걸친 석유위기를 통해 OPEC는 대폭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여기에 대항하여 소비국은 에너지절약 및 대체작전

- 제 3차 석유전쟁(1983~)

• OPEC 對 非OPEC

▲ 산유국간의 시장점유율 및 가격의 주도권 싸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1960년대까지 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던 석유지배권은 70년대에 OPEC로 대표되는 제 3세계가 빼앗겼으나, 그것을 80년대 들어서서 美國과 英國이 되찾으려 하는 전쟁인 것이다.

이 싸움은 정치적 전쟁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선 英國의 경우를 보자. 대처수상의 OPEC 혐오는 레이건 대통령의 OPEC 증오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 北海원유의 증산, 탄광파업의 수습으로 에너지 정책은 순조롭게 보이지만, 英國경제 전체로는 마이너스설을 무시할 수 없다. 북해원유의 스파트 가격이 배럴당 20달러를 밑돌게 되자 파운드貨가 급락하였기 때문이다. 파운드화의 하락은 수입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므로 대처 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금리를 인상하면 G5의 협의를 깨트리는 결과가 된다. 가격하락으로 석유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도 세금감축을 약속하고 있는 대처수상에게는 마이너스 요소이다. 고집이 강한 대처수상이 어느 선에서 OPEC와 타협할지가 문제이다.

美國에는 금융위기 ?

美國은 더욱 복잡하다. 原油가격의 급락으로 골

착회사 및 파이프라인 부설회사는 은행용자도 중지당해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석유개발회사는 채산성이 나빠져 운전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지난해에 석유부분에 용자가 많았던 콘티넨탈 일리노이은행이 도산한 것을 교훈삼아 금융기관들은 상처가 크기 전에 용자를 일찌감치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BP나 셸등 유럽系 메이저는 구입원유가 많기 때문에 가격하락을 환영할지도 모르지만, 거액의 자금으로 개발회사를 매입한 텍사코, 소칼 및 옥시덴탈, 코노코 등은 수입감소와 평가손의 이중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형성을 중시하고 있다.

OPEC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렸던 것에 대한 복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대통령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작년말에 성립된 재정균형차 법이 아닐까. 동법은 1991년까지 재정적자

네트백 方式이란

제 품 명	로테르담 시장가격 (\$/B)	收率(%)	제품가치 (\$/B)
나 프 타	22.74	× 6.0 =	1.36
고급휘발유	27.13	× 13.0 =	3.53
보통휘발유	25.38	× 4.0 =	1.02
경 유	26.74	× 43.0 =	11.50
중 유	18.22	× 34.0 =	6.20
計	—	—	23.61
* 23.61 - 0.30(정제코스트) - 0.79 (수송비) = 22.52(네트백가격)			

석유제품의 시장가격으로 역산하여 原油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원유를 정제하면 일정수율의 각종 석유제품이 생산된다. 그 수율에 따라 스파트 제품가격(1주간 1개월의 평균치)을 가중 평균하여 총석유제품가치를 산출한 다음 여기서 정유공장에서 정제코스트와 산유국으로부터의 수송비를 공제한 것이다.

1월 중순 유럽으로 수출된 아라비안 라이트의 네트백가격(22.52\$/B)은 위 표와 같이 산출되었다.

를 없애고 재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회계검사 원장은 86. 4월부터 9월까지의 6개월간에 117억달러(4%)의 지출삭감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에 대해서도, 국내의 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은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현재 의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석유과징금의 구상이다. 原油가격이 일정한 선(20달러/배럴이 유력)을 하회하면 이 차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려는 안이다. 국산에너지의 보호와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으나 생산분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코스트가 상승하여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美國이 이 구상을 실현하려고 하면 日本을 포함한 석유수입국에 대해 동조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체에너지 코스트가 원유가격 하락의 하한선이 된다는 경제원칙은 통하지 않게 되어 OPEC가 석탄과 LNG에 빼앗겼던 시장을 되찾으려고 하는 도전은 무위에 그치게 된다.

어떻게 危機를 회피할 것인가

原油가격 하락이 언제 어느수준에서 어떤 이유로 인하여 멈출까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음의 두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① 수입국이 일률적으로 수입과징금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이것은 석유수출국에 대하여 OPEC, 비 OPEC 차이를 넘어서서 행동통일을 갖게 할 것이다.

산유국은 수입국의 에너지 정책과 代替 에너지를 코스트를 감안함으로써 협조감산, 가격의 회복을 꾀할 것이다.

② 국제금융의 과탄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좀 거칠은 조치이긴 하지만, 전산유국의 협조감산과 전수입국의 일률적인 수입삭감을 실현하는 것이다. OPEC와의 협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대처리수상은 북해유전의 감산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생산, 수송설비의 점검, 수리 등의 명목을 내세워도 좋을 것이다. 삭감폭은 쌍방 다같이 10%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비국측의 수입삭감을 제 1차 석유위기때 IEA의 결정에 의해 실시한 전례가 있다. 代替에너지의 괴멸, 국제금융위기의 도래 이전에 수출국간의 협조, 산유국과 소비국의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원유코스트의 측면에서건 대체에너지 코스트의 측면에서건 또한 미국의 수입과징구상에서 원유 20달러/배럴은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20달러를 하회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될 가능성은 적다. 15\$/B이라고 하는 가격수준은 산유국과 소비국 양측에 모두 동반자살 가격이다.

원유가격 급락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거액의 누적채무를 안고 있는 中南美 제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즉시 수입을 중지할 것이므로 그 영향은 中南美에 대한 수출비율이 높은 美國의 수출격감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될 경우 美國의 무역수지 적자문제가 또 다시 클로즈업될 것이다. ◆

(日本 주간다이아몬드誌)

정직앞에 불신없고

공정앞에 불평없다